

“역사가 지켜야 할 큰 원칙은
 역사의 정통성과 계통을 밝히고,
 찬적(纂賊)을 엄하게 다스리고,
 충절을 드러내 주고,
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로잡고,
 전장(典章)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다.”

『동사강목』이라고 했을 때, '동사(東史)'는 '동쪽 나라의 역사'를 말합니다.
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'동국(東國)'이라고
 부른 데서 붙여진 이름이지요.

'강목(綱目)'의 강(綱)은 버리, 목(目)은 눈을 말합니다. 버리는 그물의 중심을
 잡아 주는 줄 또는 지지대를 가리키며, 눈은 그물눈을 말합니다. 그물눈
 은 버리를 중심으로 짜이게 됩니다. 강목체는 역사를 서술할 때, 중요 사
 건의 요지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그 아래 달아 주는 방식입니다.

우리 가까이엔 언제나 불러올 수 있는 역사 속의 훌륭한 선배가 참 많이
 있습니다.

조선 역사학의 저력

순암 안정복의 동사강목

오항녕 지음

값 12,000원



9 788928 403370
 ISBN 978-89-284-0337-0